

#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11. 10 | 통권 제56호(2014-08) |

##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 2007, 2014년의 비교\*

### [ 요약 ]

-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은 상당한 변화를 보임.
  - 노동시장 진입연령대(15~24세)와 퇴장연령대(55세 이상)에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연령대(25~54세)에서는 감소함.
- 이 시기 임금근로자 고용이 크게 증가한 직업군은 전문가, 사무직이지만,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고용은 주로 단순노무직, 서비스 종사자에서 증가함.
  - 단순노무직의 경우 25~54세 연령대에서는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로 55세 이상 고령층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 단순노무직도 주로 55세 이상에서 증가하고 있음.
  - 서비스 종사자에서도 25~54세의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15~24세와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이 활발한 25~54세 연령대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전문가, 사무직 직업군에 주로 흡수된 반면, 이들이 빠져나온 (최)저임금 일자리는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양상임.

\* 이 글은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 2007, 2014년의 비교」(성재민(2014), 『노동리뷰』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한 것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8월)를 이용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국제금융위기 영향이 있는 2009년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12% 안팎의 변동을 보임.
  -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으며, 임금 응답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pm 50$ 원을 더해서 이들을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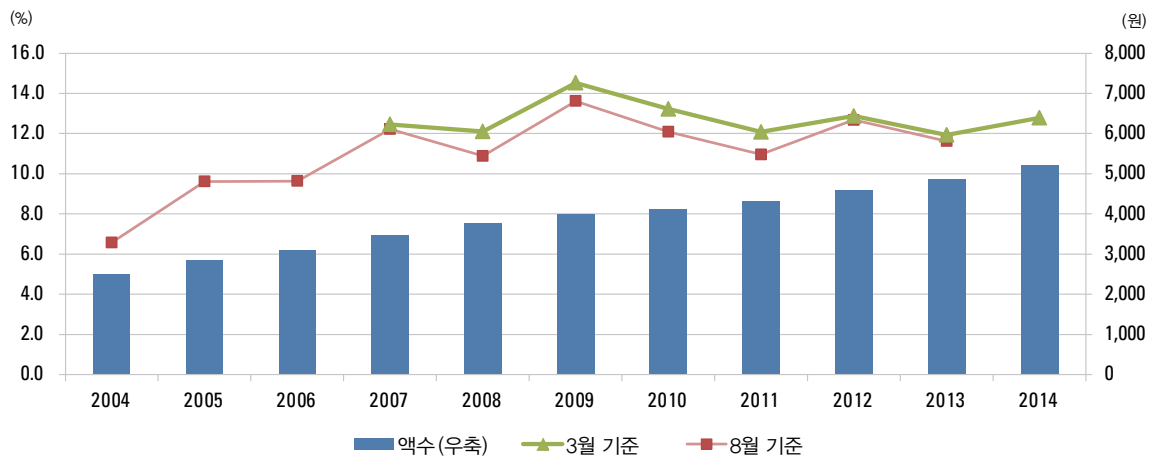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특성**

- 연령별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을 보면, 15~24세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2007년 19.4%에서 2014년 26.3%로 증가하고 있으며, 25~29세와 60세 이상은 유지, 나머지 연령대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12% 수준을 유지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연령별로 보면 최저임금근로자가 노동

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는 증가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핵심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구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여성 근로자 중 19.1%, 남성 근로자 중 7.9%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임.
  -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은 남녀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성은 25~29세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중이 가장 낮고 그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차이가 존재함.
  -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데다, 임금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의 서비스 및 판매 직종 등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이 남성과 다르게 30대나 40대에서도 최저임금 이하 비중이 높은 이유임.
-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의 경우 약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근로자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도 낮아짐.

[그림 1] 최저임금액 추이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주 : 월평균 임금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누므로 측정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최저임금  $\pm 50$ 원 구간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였음. 2004년, 2005년은 8월 기준 최저임금액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8월 원자료.

〈표 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9.4	22.2	23.3	24.9	22.9	26.2	25.0	26.3
25~29세	5.5	5.0	6.8	6.0	5.1	5.8	5.0	5.4
30~39세	6.7	6.1	7.1	5.7	4.9	5.1	4.3	4.5
40~49세	10.4	10.1	12.2	10.3	8.7	8.8	7.6	7.9
50~59세	17.1	15.4	19.6	16.4	15.3	15.4	13.9	13.8
60세 이상	45.8	45.7	53.8	50.5	47.4	47.3	44.2	46.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원자료.

〈표 2〉 최저임금 초과/이하 근로자 수 및 비중(2014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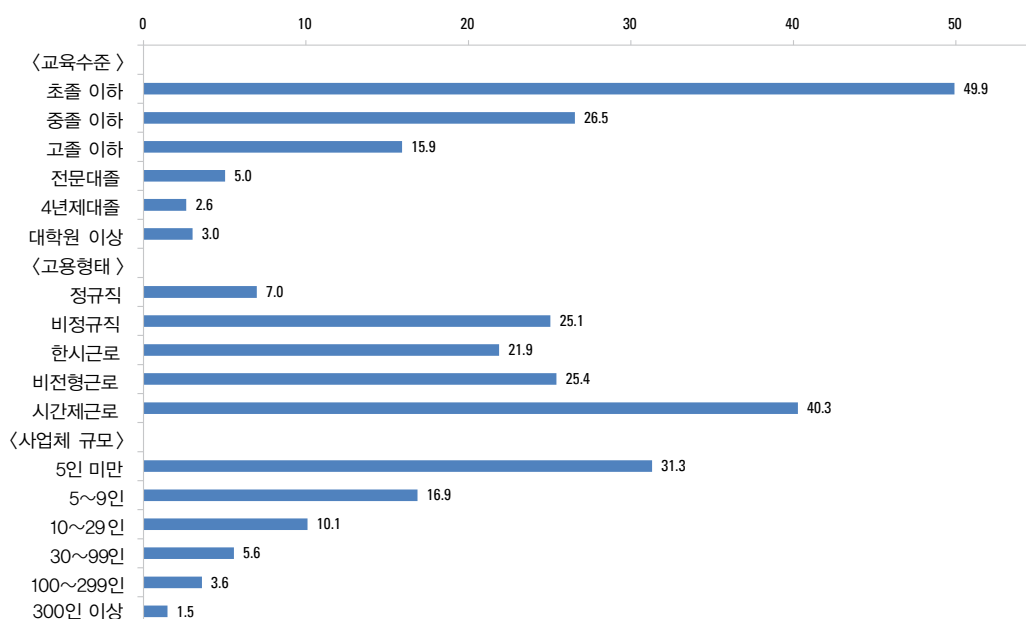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이하	비중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이하	비중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이하	비중
15~24세	1,052	376	26.3	411	160	28.0	641	216	25.2
25~29세	1,967	112	5.4	1,009	54	5.1	959	58	5.7
30~39세	4,495	209	4.4	2,876	69	2.4	1,619	140	7.9
40~49세	4,489	383	7.9	2,780	80	2.8	1,709	304	15.1
50~59세	3,158	506	13.8	1,969	139	6.6	1,189	367	23.6
60세 이상	884	765	46.4	557	326	36.9	328	439	57.3
전 체	16,045	2,353	12.8	9,601	828	7.9	6,443	1,525	1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2〉 특성별 최저임금근로자 비중(2014년 3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7%, 비정규직의 경우 25.1%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중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로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0.3%로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가 많아질수록 최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 : 2007년 3월과 2014년 3월의 비교**

- 2007년 3월과 2014년 3월의 직업별 임금근로자 증감을 분석해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955천 명 증가해 가장 고용성장이 큰 직업군이었으며, 다음은 사무종사자로 864천 명이 증가함.
  - 제조업과 건설업의 숙련공 직업이 주로 있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134천 명 감소함.
  - 서비스 종사자는 338천 명 증가하였으며, 단순노무 종사자(181천 명↑), 판매 종사자(164천 명

〈표 3〉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및 비중과 증감

(단위 : 천 명, %, %p)

		임금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2007.3	2014.3	증감	2007.3	2014.3	증감	2007.3	2014.3	비중 증감
전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56	4,110	955	97	113	16	3.1	2.8	-0.3
	사무종사자	3,170	4,034	864	98	120	22	3.1	3.0	-0.1
	서비스 종사자	1,373	1,711	338	362	482	120	26.3	28.2	1.8
	판매 종사자	1,433	1,597	164	206	285	79	14.4	17.9	3.5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1,721	1,587	-134	160	100	-60	9.3	6.3	-3.0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846	2,180	333	109	139	30	5.9	6.4	0.5
	단순노무 종사자	2,628	2,809	181	903	1,102	199	34.4	39.2	4.9
계	15,731	18,397	2,666	1,960	2,352	394	12.5	12.8	0.3	
남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61	2,164	403	34	42	8	1.9	1.9	0.0
	사무종사자	1,650	2,155	505	12	39	27	0.7	1.8	1.1
	서비스 종사자	397	591	194	67	101	34	16.9	17.1	0.2
	판매 종사자	580	671	91	42	73	31	7.2	10.9	3.7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1,495	1,403	-92	93	53	-40	6.2	3.7	-2.5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56	1,815	258	74	92	18	4.8	5.1	0.3
	단순노무 종사자	1,312	1,303	-9	385	424	39	29.3	32.6	3.2
계	9,107	10,429	1,323	713	828	116	7.8	7.9	0.1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94	1,946	552	63	72	9	4.5	3.7	-0.8
	사무종사자	1,520	1,880	360	86	81	-5	5.7	4.3	-1.4
	서비스 종사자	976	1,119	144	294	381	86	30.2	34.0	3.8
	판매 종사자	853	925	73	164	213	49	19.2	23.0	3.7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226	184	-41	67	47	-20	29.8	25.6	-4.2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90	365	75	35	46	12	11.9	12.7	0.8
	단순노무 종사자	1,316	1,506	190	518	678	159	39.4	45.0	5.6
계	6,625	7,968	1,344	1,246	1,525	279	18.8	19.1	0.3	

주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매우 적은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근로자가 합계에는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는 성장세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동 시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체적인 임금근로자 고용성장세가 컸던 전문가, 사무종사자 직업군에서는 합쳐서 38천 명 증가한 것에 불과함.

- 성장세가 그리 크지 않았던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199천 명이나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에서 120천 명 증가함.

※ 서비스 종사자 직업군에는 경찰이나 승무원 같이 저임금이 아닌 일자리도 있지만, 소규모 식당의 조리사나 홀서빙 같은 저임금 특성을 지닌 일자리가 많이 있어 단순노무직 다음으로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근로자 직업군의 성장·쇠퇴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은 큰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남.

-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76천 명 ↑), 제조업(346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73천 명 ↑), 도매 및 소매업(265천 명 ↑) 순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함.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7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116천 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1천 명 ↑) 순임.

〈표 4〉 산업별 임금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및 비중과 증감

(단위 : 천 명, %, %p)

	임금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2007.3	2014.3	증감	2007.3	2014.3	증감	2007.3	2014.3	증감
농림어업	164	129	-35	82	61	-21	49.8	47.4	-2.3
제조업	3,427	3,773	346	276	236	-41	8.1	6.2	-1.8
건설업	1,410	1,282	-128	142	91	-51	10.1	7.1	-3.0
도매 및 소매업	1,951	2,216	265	302	379	77	15.5	17.1	1.6
운수업	673	761	88	61	68	8	9.0	9.0	-0.1
숙박 및 음식점업	1,082	1,226	144	340	456	116	31.4	37.2	5.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564	638	74	10	12	3	1.7	1.9	0.2
금융 및 보험업	737	817	80	24	17	-6	3.2	2.1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9	364	65	80	76	-3	26.6	20.9	-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592	865	273	13	20	7	2.3	2.3	0.0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862	1,090	228	222	236	14	25.7	21.7	-4.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786	988	202	55	146	91	7.0	14.8	7.8
교육서비스업	1,354	1,419	65	52	64	12	3.8	4.5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658	1,534	876	50	198	147	7.6	12.9	5.2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221	216	-5	52	49	-4	23.7	22.5	-1.2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643	797	154	135	183	47	21.1	22.9	1.8
가구내 고용활동 등	143	110	-34	61	59	-3	42.6	53.4	10.8
전 체	15,731	18,397	2,666	1,960	2,353	394	12.5	12.8	0.3

주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매우 적어 표에는 제외된 광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그리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전체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가장 많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증가한 단순노무 종사자를 업종과 연령구간별로 나누어 증감을 살펴보면, 55세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 중요한 특징임.
  - 최저임금 이하 단순노무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3천 명 ↑), 공공행정(71천 명 ↑) 순으로 크게 증가함.
  - 핵심연령층에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규모는 감소(275천 명 ↓)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 단순노무 종사자가 고령화(55세 이상 469천 명 ↑)되고 있으며, 고연령층 유입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도 증가(55세 이상 267천 명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비스 종사자는 연령대별로 증감이 엇갈린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임.
  - 서비스 종사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7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41천 명 ↑)에서 주로 증가

〈표 5〉 단순노무 종사자의 업종별 · 연령구간별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단위 : 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제조업	-3	-35	24	-14	1	-18	-11	-28
건설업	-4	-86	-13	-103	-2	-13	-10	-25
도매 및 소매업	-1	1	46	46	-1	-1	37	35
숙박 및 음식점업	12	9	63	84	13	0	35	48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10	-70	96	16	-3	-23	32	6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3	-15	76	63	0	-3	73	7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2	-12	90	77	-1	-1	75	73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3	-6	3	-6	-2	-1	0	-2
협회 ·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2	7	42	51	-1	3	24	26
가구 내 고용활동 등	0	-45	12	-33	0	-13	9	-4
기타 산업	-4	-23	30	3	3	-8	2	-2
전 체	-11	-275	469	183	8	-77	267	19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6〉 서비스 종사자의 업종별 · 연령구간별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단위 : 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92	-115	24	0	58	-26	9	41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0	12	15	26	0	-2	2	-1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1	25	25	49	0	-1	7	6
교육서비스업	2	8	7	16	0	-3	-1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5	101	114	220	0	16	41	57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10	3	-1	-8	-3	4	0	1
협회 ·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16	6	19	41	10	5	7	22
기타 산업	1	-10	2	-7	-2	-1	1	-3
전 체	104	29	204	337	62	-7	65	1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15~24세(104천 명 ↑)와 55세 이상 고연령층(204천 명 ↑)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핵심연령층에서는 29천 명 증가한 것에 그침.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도 15~24세(62천 명 ↑), 55세 이상(65천 명 ↑)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25~54세는 7천 명 감소함.

■ 25~54세는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직업군에서 집

중적으로 증가(1,588천 명 ↑)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275천 명 감소했고, 서비스 종사자에서는 2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5~24세는 서비스 종사자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55세 이상 고연령층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 이와 같이 연령별로 엇갈린 직업군 변동의 차이가 25~54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감소로,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증가로 귀결된 셈임.

〈표 7〉 연령구간별 · 직업별 임금근로자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단위 : 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			저임금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	819	151	2	-1	15	-1	33	21
사무종사자	-49	769	144	-4	12	14	-20	15	28
서비스 종사자	106	27	205	62	-7	65	103	-64	120
판매 종사자	22	68	73	44	20	15	31	20	30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24	-250	140	-5	-55	-1	-13	-146	-2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	140	179	2	-1	28	-4	-49	36
단순노무 종사자	-11	-275	468	8	-77	267	-8	-203	351
전 체	48	1,240	1,378	109	-111	395	89	-403	572

주 : 전체에는 관리자와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8〉 임금근로자 중 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의 연령별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단위 : 천 명)

	전문가			사무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제조업	-5	22	4	-25	149	37
도매 및 소매업	4	42	17	-7	150	12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	-1	105	9	-11	-1	3
금융 및 보험업	-2	-1	0	-10	55	6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138	13	-3	118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5	23	1	15	55	8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5	13	17	0	41	22
교육서비스업	-46	5	26	1	45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5	440	17	8	49	5
기타	-5	31	48	-18	109	41
전 체	-16	819	151	-49	769	1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최저임금보다 범위를 넓혀 OECD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대 저임금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해 보면 15~24세는 저임금근로자가 89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서비스 종사자에서 증가한 것임.
  - 55세 이상 저임금근로자는 572천 명 증가했는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주로 증가(471천 명 ↑)함.
  - 25~54세는 저임금근로자가 403천 명 감소함.
- 전문가는 25~54세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40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8천 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5천 명 ↑) 등에서 크게 증가함.
  - 사무직은 25~54세에서 제조업(149천 명 ↑), 도매 및 소매업(150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8천 명 ↑) 등에서 주로 증가함.

**맺음말**

- 2007년 이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큰 변화 없이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융업 같은 전통적인 고임금 일자리 성장세는 크지 않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가 직업군을 필두로 하여,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생산직 고용이 증가하는 등 중간 수준 임금의 일자리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들 일자리에 25~54세 연령층이 대거 흡수되는 가운데, 이들이 빠져나온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수요를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채우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 앞서 본 연령대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구성 변화의 원인인 것으로 추론됨.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02-3775-5580 / seongjm@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http://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http://www.kli.re.kr)